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14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20년 11월 9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전태일 50주기 열사정신기세승

2020 전국노동자대회

- * 대전 : 11/14(토) 14시, 강제징용노동자상 앞
- * 충북 : 11/14(토) 14시, 청주체육관 앞

50년 전, 전태일 열사 그리고 노동개약

1970년 근로기준법 조차 지켜지지 않는 시대에 저항하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노동자가 있었다. 청계천 평화시장의 노동자 전태일이었다. 5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350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1996년 김영삼 정권은 파견법, 변형근로시간제법, 정리해고법을 날치기 통과했다. 민주노총의 96-97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약을 막아냈으나 고용불안의 시대, 비정규직 시대는 막을 열었다. 2006년 노무현 정권은 기간제법을 개약하면서 비정규직 대량 양산의 시대를 만들었고, 2011년 이명박 정권은 복수노조법으로 노조 파괴 광풍의 시대를 열었다.

2020년 문재인 정권의 노동개약

올해 문재인 정권은 노동개약의 역사에 한 획을 그으려 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조의 손발을 묶어버릴 노동개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회에서는 언제든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문재인표 노동개약은 산별노조와 상급단체, 연대단위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다. 쟁의행위를 하면 사업장 밖으로 쫓겨나야 한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교섭의 기회를 줄여버린다.

민주노총은 이에 맞서 노동개약을 막아내고 전태일3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전태일3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리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새롭게 만든다. 지금은 노동개약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 노동법 전면 개정이 필요한 시대다.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저지하자!

민주노총은 이번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문재인정권의 노동개약을 막아내고 전태일3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포문을 연다. 전태일열사 50주기에 감히 노동개약을 시도하는 문재인정권에 맞서 위력적인 총파업, 총력투쟁을 벌이자!

